

■ 건강! 예방이 우선입니다.

결핵에 대하여

● 결핵이란?

-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전염성이 있는 급·만성 질환으로 누구나, 인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.
- 처음 감염은 1차감염이라 부르며, 재감염되면 2차감염이라 부르는데, 이 2차감염은 몸밖에서 새로 결핵균이 들어올 경우도 있지만, 그보다는 내인성으로 재발하는 것이 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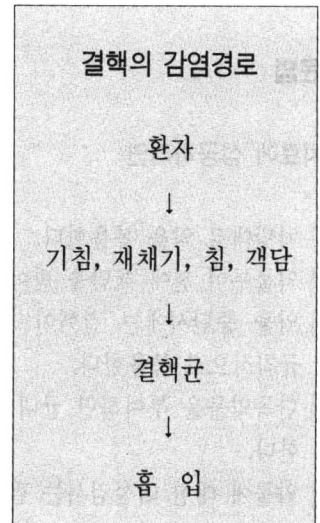


☞ 결핵의 임상적 분류

- 활동성 결핵 :**
흉부가슴사진을 6개월 간격으로 촬영했을때 병변의 변화가 없고, 객담검사에서도 결핵균이 발견될 때.
- 정지성 결핵**
객담검사에서 최소한 3개월간 음성이었고, 흉부가슴사진에서 공동이 있지만 안정되거나 호전되는 소인이 있을 때.
- 비활동성 결핵 :**
6개월마다 실시한 객담검사에서 음성이었고, 흉부가슴 사진에서도 안정되어 병소가 적고, 6개월간 공동징후 없을 때.

● 감염경로

- 폐결핵환자가 기침, 재채기, 말을 할 때 침이나 객담속에 섞여서 공기중으로 나온 결핵균을 직접 흡입할 때 감염된다.
(수분이 증발하고 난 침방울 속에 남겨진 결핵균이 공기중에 떠돌아 다니다가 호흡시에 공기와 함께 폐에 들어와 감염된다.)



● 주요 증상

발병 초기에는 특별하지 않지만 진행될수록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.

- 혈담, 각혈
가는 혈관이 침범당하면 혈담이 조금 나오고, 다소 굵은 혈관이 침범당하면 피의 양이 많아 폐에서 피가 나오는 각혈을 한다.
- 기침
계속해서 오랜 시일에 걸쳐 기침을 하게 된다.
- 가래
기침과 함께 나오는 가래는 결핵균의 유무를 알리는 증상이다.
- 발열
병의 진행속도가 빠르면 열이 나지만, 진행속도가 완만하면 열이 없거나 미열이 있다.
- 식은 땀
폐결핵의 특유한 증상으로 여겨왔으나 반드시 식은 땀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.
- 식욕부진
- 체중감소
- 피로감
초기에는 없으나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난다.
- 호흡곤란
폐의 1/4 정도가 침범 당해도 호흡곤란은 일어나지 않지만, 그 이상 진행시에는 발생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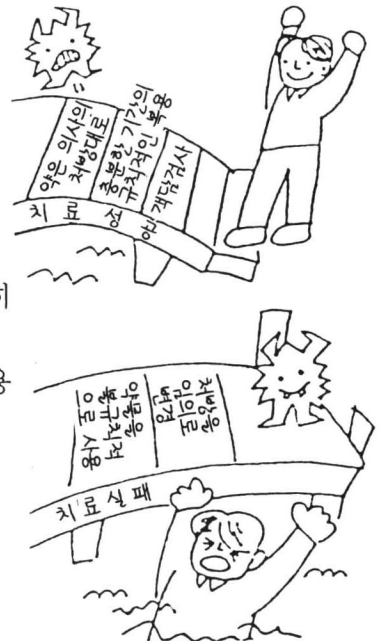
● 치료법

☞ 치료에 성공하려면

-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다.
- 약물투여 전에 객담을 받아둔다.
- 약물 중단시에는 결핵이 재활성화 되므로 충분한 기간 꾸준히 규칙적으로 복용한다.
- 단독약물을 투여하면 균내성이 빨리 생기므로 항시 약물은 병용한다.
- 약물에 대한 내성검사는 필수적이다.

☞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

- 적절한 처방을 마음대로 바꿨을 때.
-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부정확하게 사용한 경우.



☞ 치료의 핵심

- 휴식
- 고단백, 고열량식사, 종합비타민 복용
-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다.

● 예방법

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므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.
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전염력이 강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.

☞ 예방관리법

-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과 충분한 치료가 예방의 열쇠이다.
결핵이 의심되거나, 2주 이상 기침시에는 건강진단을 받는다.
어린이의 경우 PPD검사 후 BCG접종을 한다.
- 결핵환자 가족은 전체 가족 모두 검진을 받아야 한다. 가족 중 한 사람이 감염되면 다른 가족도 쉽게 감염된다.
- 올바른 객담처리
객담은 꼭 휴지에 뱉어서 종이주머니에 모아두었다가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서 5분간 멸균한 후 땅에 묻는다.
- 기침할 때의 바른 태도
입을 가리고 한다거나,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기침한다. 또한 침을 함부로 아무 곳에 뱉지 않도록 한다.
- 충분히 영양섭취를 한다.
- 과로를 피한다.

☞ 진단방법의 종류

- 피부반응검사
투베르클린 검사 : 결핵의 집단 검진시에 사용되며, 접종 48-72시간 후에 피부의 경결부위를 판독하게 된다.
- 엑스선 검사
- 객담검사

결핵예방법

